

욥기 역시, 다른 성서와 마찬가지로, 성서의 핵심인 "정체성과 생활규범"이란 면에서 살필 수 있다. 장면은 하느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과정이다. 그런데 토라에서와는 달리(출 16:4; 20:20; cf. 창 22:1), 여기서는 하느님이 욥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욥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. 그런데도, 욥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, 진짜로 자신의 신학/신앙의 정체성을 찾은 것이다. 더 이상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(남의 신앙/신학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), 스스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고백의 신앙이다.

출발점: 욥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?

1. 문학적 특징: 산문으로 쓰인 서문과 후기(1-2 장, 42:7-17)가 중간의 시문(3:1-42:6)을 감싸고 있는 형식=> 산문이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해석학적 잣대.

-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,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?(욥 1:9)
-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...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(2:3).
-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중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(42:7).

2. 잠언과 신명기 사관에서 보이는 인과응보 신학의 문제점

전통(신명기) 신학의 전제

-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(출 20:5)
-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(욥 4:7)

문제점: 포로기 이후 개인책임론(individual responsibility) 등장

-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"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?" 하는도다.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려니와 범죄 하는 그 영혼은 죽을찌라.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(겔 18:19-20)
- "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"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(욥 21:30)

A. 주제: 신정론(神正論, theodicy)—악의 문제 (특히 무죄한 자의 고난)

1. 순수한 철학적 질문

- 논리적 모순
 - 하느님은 절대 선하시다—악을 미워하신다.
 - 하느님은 절대 전능하시다—악을 제거할 힘이 있으시다.
 - 악이 존재한다.
- 위의 세 가지 중 하나를 부정/부인해야 논리적으로 타당.

2. 욥기가 제기하는 실존적 문제

- 신(들)의 입장에서. 욥이(인간이) 까닭 없이—대가를 바라지 않고—경건할 수 있겠는가?(1:9)
- 인간의 입장에서. 죄 없이—까닭 없이—고난이 있을까?
 -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(4:7);
 -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?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(8:3-4)
- 욥도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은 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. 차이점이란, 욥은 자신이 벌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, 그의 친구들은 몰랐다. 그렇기에 친구들은 회개를

촉구했고, 욥은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한 이유—자기를 변호할 기회(욥 31:35-37)—를 구했다. 저자만이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를 드라마 형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.

B. 욥기 42:6—다시 읽기.

욥기 42 장 6 절은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있다. 역본마다 그 해석을 달리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.

- עַל־כֵּן אֲמַאֵס וְנִתְמַחִי עַל־עָפָר וְאָפֶר
- KJV: Wherefore I abhor *myself*, and repent in dust and ashes.
- NRSV: Therefore I despise myself and repent in dust and ashes. (NIV 도 마찬가지)
- TNK: Therefore, I recant and relent, Being but dust and ashes.
- 개역한글: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.
- 표준새번역: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들이고,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.
- 공동번역: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.
- AWP: Therefore I reject and console myself upon dust and ashes. (그러므로 내가 [내 말을] 거두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나이다.)

1. 위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 역본들은 욥이 자신을 역겨워하고(abhor, despise, 한하고) 회개했다고(repent, 회개, 뉘우침) 이해하고 있다. 42 장 6 절 자체만 놓고 보면, 이런 번역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, 욥기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. 욥은 책 전체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, 이는 또한 하느님도 인정하는 바다(1:8; 2:3; cf. 42:7).
2. "내가 스스로 한하고"(I despise myself)는 히브리어 **엠아쓰**(욥 9:21; 31:13; 42:6; 렘 31:37; 33:26)를 번역한 말인데, 42 장 6 절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처럼 번역하지를 않았다. 이 말의 뜻은 "내가 거부한다"이다. 42 장 6 절을 이렇게 이해할 때 생기는 문제는 이 말의 목적어가 없다는 점이다. 무엇을 거부하는가? 문맥상 "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한 말"(42:3)을 가리킬 수 있겠다. 타나크 영어역본과 표준새번역은 이런 이해를 반영한다.
3. 보다 심각한 문제는 욥이 회개했다는 이해인데, 이미 말한 대로 앞뒤가 맞지를 않는다. 여기에 쓰인 동사 **니함**은 "회개하다" 외에 "위로하다"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, 수동형/재귀형으로 쓰인 이 두 번째 뜻이 보다 어울린다: "스스로를 위로하다." (참고로, 이 동사의 능동형이 이사야 40 장 1 절의 "위로하라"이다.)
4. 결과적으로, 우리는 42 장 6 절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: Therefore I reject and console myself upon ash and dust (그러므로 내가 [내 말을] 거두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.)
 - ⇒ 욥이 품고 있던 숙제는, 죄/정의를 문제 자체라기보다, 그가 왜 "까닭 없이"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다. 이 답은 그의 세 친구, 엘리바스, 빌닷, 소발(3-27 장)도 또 엘리후(32-37 장)도 줄 수 없던 것인데, 38-41 장을 통해 욥이 하느님을 만나고(42:5), 스스로 얻은 것이다.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도 자족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.
 - ⇒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? 우린 모른다. 그러나 욥은 알았다. 더 정확히 말해, 욥은 깨달았다고 저자는 전한다. 루돌프 오토가 Idea of Holy 에서 말한 것처럼, 하느님을 만난 그 경험은, 우리의 말과 이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.

결론/평가

- ✚ 욥은 의롭고,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(1:1, 8; 2:3). 그는 하느님에 관한한 옳게 말한 유일한 사람이다(42:7).
 - a) 창세기와는 달리 악의 근원을 인간이 아닌 하느님에게 둔다=>지혜문학. 아담이 하와/이브의 말/유혹을 들은/따른 것과는 달리, 욥은 하느님을 저주하라는 자신의 아내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(2:9-10).
 - b) 하나님은 욥과의 대화를 통해 그를—그의 신학/신앙의 틀을— 침묵시킴으로써, 우주가 합리적인 원리를 따라 운행된다고 보는 생각(비교. 잠언사상)이 잘못되었음을

가르친다(합리성 원칙을 철회). 욥은 창조의 신비에 비추어 볼 때 자기의 존재가 보잘것
없음과 다시는 자기주장을 내 세우지 않을 것을 고백한다(42:1-6).

✚ 아마도 포로기 이후에 전통적 신학(e.g., 신명기)이 도전을 받을 때, 신학적 공백 속에서 일어난
새로운 신학적 사고를 반영하며, 이는 또한 잠언의 지혜문학과도 차별화. 질문은 훌륭하나
대답이 신통치 않음--현문우답(賢問愚答).

- a) Whirlpool Speech 38-41 장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하느님의 힘과 능력을 욥은 문제삼지
않았다. 문제는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답이다(1:9; 2:3; 9:17). 허면, 욥이 얻은 교훈은?
- b) 만일 욥기가 '독재자 하나님'께 굴복한 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, 근본보수의 승리(?).
인과응보 신학에 대한 도전이 '까닭 없이' 제자리로 돌아온 격. 그러나 욥 42:7 에서 욥의
친구들은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라, 꾸중을 들었다. 즉, 전통신학이 틀렸다는 말. 그들은
의인에게는 복을 불의한 자에게는 저주를 말하지만, 욥은 말한다.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
멸망한다(9:22).
- c) 욥의 변화란 처음부터 자신의 질문이 과녁을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. 욥도 자신의
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신학적 틀 안에서 자신의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자 했다. 왜 이런
일이? 그런데 그 틀 안에서는 답이 없었다. Paradigm shift! 신학적 사고의 틀, 생각을
바꾸고—이것이 회개(μετάνοια)라면—신학 다시하기를 통해 스스로 자족하는 신앙을 찾았다.

생각해 보기

1. 욥기에만 "하나님"이란 단어가 159 절에 등장 (공동번역 151 절 표준새번역 240 절 KJV 115 번).
우리 생각과 말을 얼마나 하나님이란 이름을 빌어 표현하는지 단적으로 증명.
2. 흔히들—특히 새로이 비지니스를 연 집을 방문하면서—욥기 8:7 이 든 액자를 선물한다. 그
내용은 "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." 이것은 욥의 세 친구 중 하나인
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다. 욥기의 신학에서 이를 어떻게 여길까? (참고. 욥 42:7)
3. 욥기 42:7 이후에 욥은 이전의 두배의 축복을 받는다 (비교. 욥 1:2-3 ; 42:12-13). 나라면 이걸
환영할까? 이 후기가 뜻하는 바는?